

「2023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」 백일장 분야

작품 제목

내 마음에 정직한 씨앗

작품 본문

“아니 이게 뭐야?”

2023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 여자 허들 결승전 출발 총성이 울리기도 전 중국 선수 ‘우옌니’가 먼저 선출발을 한 것이다. 이에 심판은 우옌니와 한 인도 선수에게 실격을 주었다. 선출발은 중국 선수가 했는데 인도 선수 마저 실격이라니 정말 보는 사람마저 어이를 상실하게 했다.

스포츠 경기에서 가장 정직하고 청렴해야 할 심판이 정직하지 못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.

이 경기를 통해 정직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. 그래서 난 정직함은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냉정하게 규칙대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.

정직함 또는 선함은 곧 우리의 모습 같다. 김구 선생님이 관상 공부를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비정직함과 악하고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한다.

그래서 웃으려고 노력하고 선행, 정직함, 배려 등 좋은 것들을 실천해 지금 우리가 아는 친절할 할아버지 모습으로 바뀌신 것이다.

나도 이 내용을 알고 나서부터 선생, 정직함 등 실천해 보고 있다. 가끔은 나도 내 마음 조절이 어려울 때가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는 사람이 되고 배풀며 줄 주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.

또한 난 그 어느 상황에서도 정직함을 유지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선생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.

그래서 내 얼굴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위해 정직한 사람이 될 것이다.

난 모든 사람들에 마음 속에는 심리 재판소가 있다고 생각한다.

하지만 심리 재판소마다 있는 문제가 있다. 각자의 마음 속에 있다보니 그 마음을 통해 결정하는 과정에 자기 기준으로 평가 하다보니 정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때가 있기 때문이다.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심리 재판소를 직접 고칠 순 없겠지만 내가 먼저 나의 심리 재판소 판결 기준을 올바르게 고쳐 정직한 모습을 보이면 그것이 사회에 작은 씨앗이 되어 커지면 커질수록 선함이 다른 사람 마음에도 깊이 심어져 그 사람이 또 선행을 베풀며 건강한 사회가 형성 되지 않을까 싶다.

이런 작은 씨앗을 먼저 품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 한 명의 노력이 사람에게 미치는 좋은 영향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회를 형성 시킬 수 있지 않을까? 라는 생각에 나 먼저 사회의 좋은 모순이 되어보고자 실현해 보고 싶다.

예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과거 시험을 합격 해야만 관직에 오를 수 있었는데 관직에 오르기 위해 과거 합격서를 위조 하거나 자신이 고위 관리인 척 하다가 걸린 사람들이 대다수이다.

이런 행위는 전혀 정직하지 못한 일들이다. 이런 역사를 볼 때마다 정직하지 못해도 그 사람들이 얼마나 편하게 살고 싶을지 상상이 가 내 마음의 울음 종을 울린다.

만약 사람들의 재판에 재판관이라면 처벌할 것이다.

왜냐하면 정직하지 못한 행위이기 때문이다. 내 마음 속에 피는 정직 씨앗에 선행하는 물과 해님 아래에선 거짓말 못하는 정직한 모습의 내 꽃이 기다려진다.